

‘젠 테라피’, 불교 禪과의 관계는?

불교상담학회 ‘젠 테라피’ 주제 세미나 개최

최근 ‘힐링’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선’과 ‘명상’ 역시 유행의 큰 물결을 타고 있다. 인도 명상에서 시작된 명상 붐은 치유의 바람을 타고 불교 명상으로 변했으며 다시 ‘선’의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선사상에 입각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젠 테라피(선치료)는 한국에까지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과 선, 젠 테라피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양자의 목적과 방법론은 같을까, 다를까. 또 불교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가 동국대 불교상담연구소(소장 안양규)와 공동으로 12월 7일 개최한 제6회 불교상담심리학회에서는 불교와 ‘젠 테라피’로 대표되는 선치료의 관계가 고찰됐다.

피 보급에 나서고 있는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와 2010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선치료전문화 과정을 거친 이 분야 국내 전문가다.

김 교수는 “젠 테라피 어떻게 볼 것인가? - 불교학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통해 “젠 테라피는 이론적 배경으로 무아를 기반으로 의거해 자기 주변과 대화로서 회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료라는 느낌, 범부가 범부를 대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교수는 일반적 상담치료와 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먼저 공통점을 불성과 인본주의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인본주의 심리학 대표자 칼 로저스의 상담과 선치료의 유사점은 내담자의 잠재력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차이점으로 “로저스의 상담이 내담자의 준거 안에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비해 선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에서든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다르다”며 “선치료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



일선 사찰에서 진행되는 간화선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간화선을 체험하고 있다. 간화선도 심리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니라는 원리에 입각해 동로의식에서 오온의 순환과정을 있는 그대로 비취 실재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심리치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왜곡 가능성도... 체계 정립 필요

이에 대해 안양규 동국대 박사는 논평에서 “선치료를 주장한 브레이저 박사가 불교교리를 새롭게 해석해 일상생활과 상담 상황에 적용하려는 방식은 불교 핵심 교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충돌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선치료는 선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최근의 흐름이 자칫 불교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고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흐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치료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불교사상을 응용분야로 확대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도 “1970년대 인도명상과 단학, 1990년대 위빠사나, 2010년대 선을 포함한 다양한 불교 명상의 시대흐름이 있다”며 “초기불교에 기반을 둔 위빠사나를 적극 수용해 간화선 체계로 통합하고 그 응용법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젠 테라피는 붓다의 가르침

이날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는 ‘젠 테라피’가 불교에 근거한 치료이며, 치료과정에서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기법을 반영으로 응용하고 있기에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성 교수는 40여년간 젠 테라

대불련 총동문회장 현안 책임지고 사퇴 7일 제5차 지부장회의서

스님들의 시국선언 비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원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사퇴했다.

원유자 회장은 12월 7일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제5차 지부장회의에서 성명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불련 총동문회는 백효홍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당초 지부장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논의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부장들이 성명서 사태에 대한 해명 없는 회칙 개정에 대해 반발하며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원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

이에 앞서 원 회장은 11월 29일 대한민국의기독교총연합회 등과 함께 실천승가회가 주도한 ‘불교 승려 1012인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회는 1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 펴뮈 소설, 지자체 문학상 수상 논란

합천 다라국문학상 수상작 ‘황강’... 문제 제기 잇달아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고, 불교를 숭상했던 신라 법흥왕의 종교 박해로 가야가 멸망했다는 내용의 소설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학상에 수상작으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2월 5일 제1회 다라국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작에는 소설가 표성훈 씨의 <황강-다라국의 발원>이 선정됐으며, 현재 심사를 주관한 출판사 문학나무에서 소설을 발간해 전국 주요서점에 배포했다.

문제는 표 씨의 소설 내용이다. 표 씨는 일부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 전래설을 기반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지역 문인들은 “가야와 다라국을 기독교 국가로 상상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불교 국가인 신라 진흥왕의 종교 박해로 멸망했다고 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라 진흥왕은 가야의 건국 신양인 신당을 부수고 장로를 살육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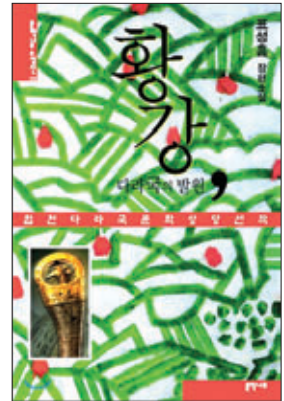
이야기도 있다”고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소설가 표 씨가 작품 말미에 쓴 에필로그를 보면 합천 박물관 학예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도 초기 기독교 전래설을 바탕으로 했음을 기술해 놨다. 표 씨는 “신라의 마의태자의 전설은 신화에서 역사가 됐다”

‘가야=기독교 국가’ 묘사 후기도 의도성 역사 왜곡 군청 “내용 모른다” 일관

면서 “다라국 마지막 성곽태자 이야기도 신화에서 역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하창환 합천군수는 뒤늦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한 문학상에서 작품



제1회 합천 다라국문학상 수상작인 소설가 표성훈 씨의 <황강-다라국의 발원>.

개요 한번을 행정책임자가 살피지 않고 수상작을 선정해 출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천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문학상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모호적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역사 자체를 날조한 것이다. 문학의 범주를 벗어났다. 동북공정은 논리라고 있지만 이는 무지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본사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포교정책 현실화 위해 현장과 소통”

조계종 포교원, 자문회의 연이어 개최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위원회와 포교연구위원회 등 자문회의를 연이어 열고 포교정책 쇄신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정책 집행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문제제기 등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본과회의실에서 제1차 포교위원회 회의와 포교연구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계층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 스님 “분야별 협력 강화”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원 정책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포교부장 출신의 중앙종회의원 일관 스님은 포교위원회 회의에서 “큰 행사마다 총무원과 포교원의 협조 공문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포교원의 공문은 참고자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일선 사찰, 특히 교구본사와 연계해 포교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포교위원장 동광 스님은 “포교는 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상 다른 종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연구위원회에서는 계층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법혜 스님은 “사회 노령화에 맞춰 49세를 비롯해 성장세와 관련된 포교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포교 프로그램 연구를 포교원 측에 주문했다.

운영회 포교차장은 “외부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내년 포교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은 “중장기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 각 분야의 협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략적인 포교 수립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율 스님 내성천 공사 중지 소송 제기

법률적 검토 관련 세미나서

“영주담 중지 가치분 소송은 영주담이 내성천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관련법령에 의거해 그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미래 예측하고 증거를 제시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율 스님이 영주담 공사 중지 가치분 소송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12월 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내성천 개발계획 철회를 위한 법률적 검토-내성천 보존을 위한 집중 토론회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율 스님(사진)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100여일의 환경영향 평가 기간을 거치며 계획된 영주담은 발원지인 물야에서 60km 지점인 내성천 중류에 세워지며 영주담이 완공되면 19km 구간, 10.4km의 유역이 물이 잠기게 된다.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가 끊기는 형상이며, 화상으로 비유하면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3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앞으로 소송 과정을 통해 내성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 어가고자 한다.



스님은 “천성산과 새만금 소송에서 보아왔듯이 시행처가 정부이고 시공사가 대기업일 경우 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만큼 어려서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벽이 높다고 해서 분노 하며 담벼락 밖에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심정으로 스님은 소송의 방식을 선택했다. 스님은 “정부의 계획대로 영주담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19km의 강변은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 문제와 법률적 검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권했다.

스님은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답합을 행한 시공사 삼성건설의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 하천 지형학 압축파일 내성천(오경섭 한국 교원대 지형학 명예교수) △내성천의 생태적 가치-(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학 교수) △내성천에 깃드는 새들, 습지의 가치-(박승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의원) △내성천의 가치와 법률적 문제- 지율스님 등의 순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정혜숙 기자

경고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법왕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법왕추대식을 봉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공동으로 추진한바 없으며 허위의 공문임을 알리오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어느 스님이 종단총연합회에서 추대하는 법왕이 되고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히오니 절대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세계불교법왕청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스님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승인도 없이 명칭을 임의 도용한 사실에 대해 2013년 12월 21일까지 불교계 신문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정식 서류로 다시는 명칭도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를 강행할 것입니다.

불기 2557년 12월 13일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011-229-6061